

아소산과 화산 신앙

— 신들이 머무는 산의 역사와 전통 —



아소 신사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신사

아소 신사는 기원전 282 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의 아소 신사는 2 개의 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칼데라 바닥에 펼쳐진 아소시에 위치한 하궁 (아래 신사) 과 아소산 꼭대기, 분화구에서 백수십 미터 남짓 아래에 위치한 상궁 (위 신사) 이 있습니다. 상궁의 정식 명칭은 문자 그대로 '아소산 위에 있는 신사' 라는 뜻의 '아소산조 신사 (阿蘇山上神社)' 입니다. 상궁과 하궁 둘 다 아소산의 분화구를 신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궁에는 1830 년대부터 1840 년대에 걸쳐 지어진 보존상태가 양호한 건물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 몇몇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궁은 하궁이 지어지고 나서 조금 후인 19 세기 말 경에 건립되었습니다. 현재의 상궁은 1958 년에 지어진 것으로 콘크리트 구조로 된 소박한 한 채짜리 건물입니다. 화산신앙의 목적은 화산의 신들을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만족스러운 기분일 동안은 화산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만, 신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분화합니다. 비록 소규모라 하더라도 화산의 분화는 농작물이나 가축, 인간의 주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아소산의 화산신앙에 대한 최초 기록은 중국 수 왕조의 정사, 중국 수나라 역사서 『수서 (隋書)』 (636 년)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아소산이 신성한 것으로 인식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8, 9 세기에 쓰여진 일본 문헌에도 등장합니다. 천황이 사는 수도 교토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신사가 이처럼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아소의 화산의 움직임이 일본 전체의 운명을 예고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소 신사의 신관들은 화구 바닥에 고인 물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그 모든 변화를 조정해 보고했습니다. 그 변화가 흉조라고 판단될 경우에 조정에서는 아소산의 분화와 나라 전체의 재앙을 막기 위해 전국의 신사에 열심히 기도를 올리도록 명했습니다.



아소 신사 누문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

아소산조 신사





아소 신사의 신들

선과 악의 양면성

아소 신사에는 12 신령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12 신령 중 특히 중요한 3 신은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 (健甕龍命) 와 그의 아내인 아소쓰히메노미코토 (阿蘇都比咩命), 그리고 그들의 손자인 히코미코노카미 (彦御子神) 입니다.

신도에서 일본의 신들은 대부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선한 면과 재앙을 주는 악한 면을 모두 가진다고 합니다. 즉, 자연의 혜택과 자연재해는 모두 신이 내리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소산의 경우, 신의 은혜는 벼의 풍작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며, 재앙은 파괴적인 화산 분화였습니다.

칼데라의 기원에 얽힌 신화

신이 발로 차서 생겨난 풍경

먼 옛날에 아소의 칼데라는 호수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칼데라에 사람이 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은 칼데라의 외벽 일부가 무너져 호수의 물이 빠진 후였습니다. 이 지역 신화에서는 이 변화가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 (健甕龍命) 라는 신이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는 칼데라 서쪽 중간쯤에 있는 겹고개에서 칼데라 벽을 발로 차 무너뜨리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 남쪽에 위치한 다테노에서 다시 벽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는데 이번에는 성공이었습니다. 벽이 붕괴하자 물이 흘러나와 칼데라에 있던 물이 다 빠졌습니다.

현재 시라카와 강과 구로카와 강이 합류하여 칼데라에서 흘러나오는 지점을 다테노라고 합니다. ‘다테노’ 라는 지명은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가 2 번째 발차기 후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을 때 말한 “다텐노 (‘못 일어나겠어’ 라는 뜻의 일본말 방언)” 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는 호수의 물을 빼내 사람들이 칼데라 안에서 생활하고 농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는 ‘아소의 아버지’ 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아소산에 얽힌 12 주 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으로 꼽힙니다.

아소 신사의 의식과 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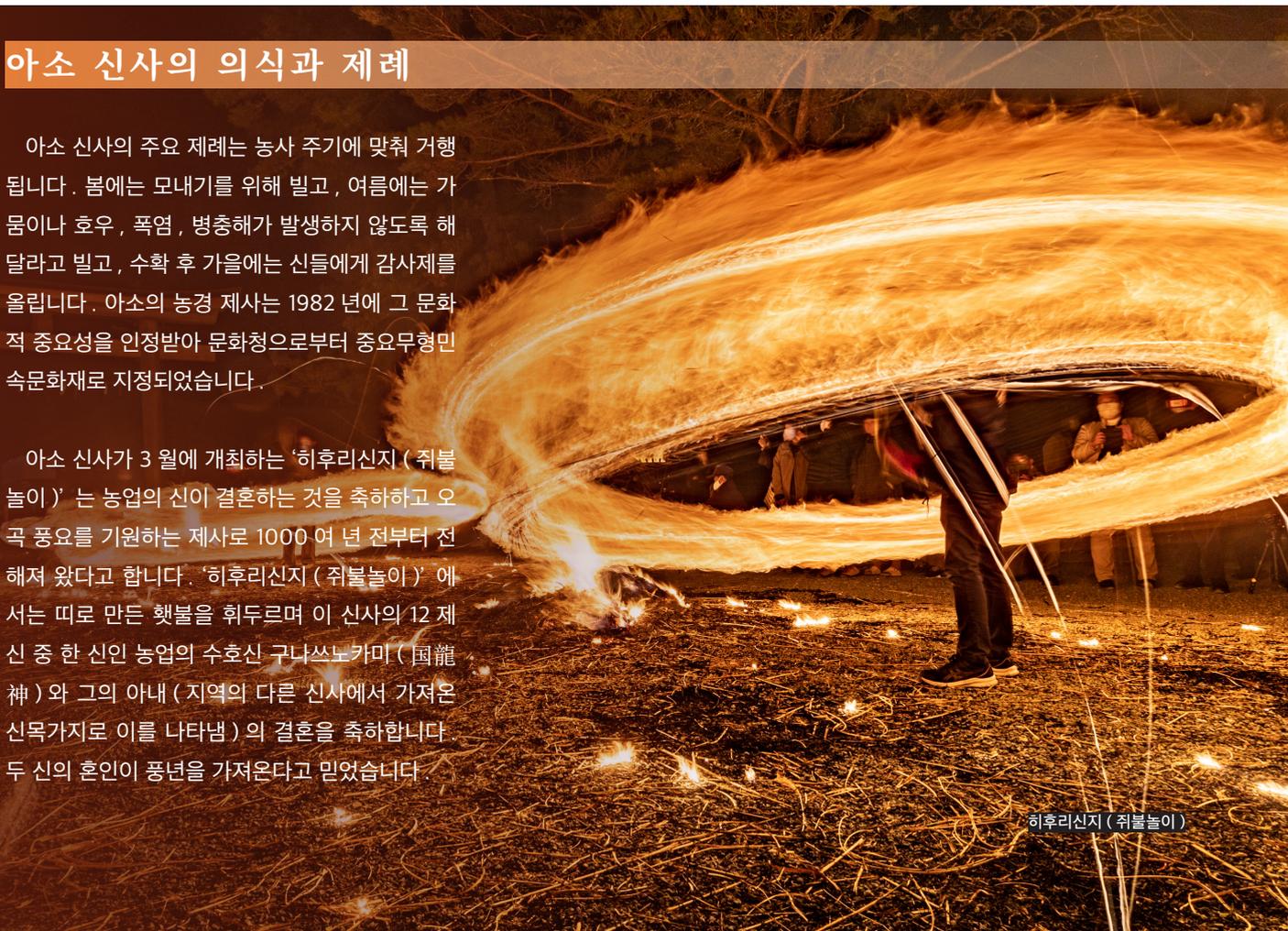
아소 신사의 주요 제례는 농사 주기에 맞춰 거행됩니다. 봄에는 모내기를 위해 빌고, 여름에는 가뭄이나 호우, 폭염,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빌고, 수확 후 가을에는 신들에게 감사제를 올립니다. 아소의 농경 제사는 1982 년에 그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문화청으로부터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소 신사가 3 월에 개최하는 ‘히후리신지 (쥐불놀이)’ 는 농업의 신이 결혼하는 것을 축하하고 오곡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로 1000 여 년 전부터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히후리신지 (쥐불놀이)’ 에서는 띠로 만든 횃불을 휘두르며 이 신사의 12 제신 중 한 신인 농업의 수호신 구나쓰노카미 (國龍神) 와 그의 아내 (지역의 다른 신사에서 가져온 신목가지로 이를 나타냄) 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두 신의 혼인이 풍년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아소 신사의 2 가지 역할

분화를 막아 풍년을 이룬다

아소 신사에서 거행되는 의식과 제례에는 2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소산의 분화를 막는 것, 두 번째는 풍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두 역할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작은 분화라도 상당한 범위에 걸쳐 농작물이나 가축, 주거지가 분연이나 화산재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화산 분화는 대부분의 경우 한 번 일어나면 수 개월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누적된 피해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화산 분화보다 수확 시기가 더 정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신사에서는 분화구 진정의식보다 벼농사와 관련된 의식과 축제를 더 많이 거행합니다.



히후리신지 (쥐불놀이)



온다 마쓰리

7월 말에 열리는 '온다 마쓰리' 도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입니다. 말을 탄 신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옷차림을 하고 신들에게 바칠 음식을 머리에 이고 운반하는 14 명의 (우나리라고 불리는) 여성들, 끝에 남·여·황소 머리가 달린 막대를 든 3명의 지역 소년들과 함께 신사의 제신들을 신여(가마) 4대에 태우고 지역의 논을 둘러봅니다. 관객들은 신여(가마)에 이삭이 달린 벼를 던집니다. 벼이삭이 신여(가마) 지붕에 많이 붙을수록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9월 하순에는 쌀 수확을 축하하는 '다노미사이(벼 수확 감사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에서는 야부사메(질주하는 말 위에서 화살을 과녁에 쏘는 일본의 전통무술)가 봉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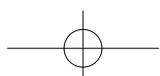
농경에 특화된 제례와 더불어 아소 신사의 신관들은 매년 6월 초 '화구 진혼제'를 지냅니다. 신관들은 축사를 하며 아소산의 3신에게 바치는 공물로서 고헤이(흰 종이로 만든 장식이 달린 신장대) 3개를 아소산 분화구에 던져 넣습니다.



다노미사이(벼 수확 감사제)



화구 진혼제





히와타리신지 (불길 걷기)

사이간덴지 절 (西巖殿寺): 역사에 대하여

약 1300 년의 역사를 가진 사이간덴지 절은 규슈에서 가장 역사 깊은 사찰 중 하나입니다. 이 절은 인도에서 온 사이 에이 (最栄) 라는 승려에 의해 726 년에 창건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6 년 구마모토 지진과 그 후 아소산 화산활동으로 1890 년에 지어진 건물이 심하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2022 년 8 월에 이전 것보다 작은 현재의 건물로 다시 지어졌습니다.

사이간덴지 절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의 조류에도 휘둘러 왔습니다. 이 절은 한때 번영을 자랑했던 화산 신앙의 거점이자 연인들의 참배지였으며, 소박한 사찰과 야마부시 (산악 수행자) 들이 사는 암자가 모여 있던 가장 중심 사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 (1868-1912) 초기 일본의 새로운 국수주의 정부는 불교를 외국에서 들어온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 불교와 신도를 강제로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사이간덴지 절은 십일면 관음 (불교 보살) 과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 (健甕龍命) (신도에서 아소산의 신) 를 둘 다 모시고 있었기에 폐사되었습니다. 절의 본당은 1871 년에 현재의 아소 시내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의 반불교운동이 점차 기세를 잃으면서 산 위의 사찰은 참배자를 맞이하기 위해 1890 년에 재건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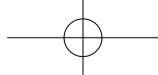
사이간덴지 절 (西巖殿寺) 의 역할

사이간덴지 절은 천년을 훨씬 넘는 옛날부터 아소 지역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아소시에 있는 사이간덴지 절 본원 주지스님은 매일 아침 산을 올라 본존인 십일면 관음에 불경을 올립니다.

이 의식의 목적은 아소산의 분화를 막는 것입니다. 아소산에서 분출되는 연기와 재는 논이 버나 산 등지에서 풀을 뜯는 소에게 해를 입히고 식수를 오염시킵니다.

주지스님은 또한 관음에게 참배자의 소원도 함께 기원합니다. 소원 내용은 사찰 입구에 다발로 매달아 놓은 오색의 길쭉한 천에 적혀있습니다. 각각의 색은 특정한 소원을 나타냅니다. 흰색은 액막이, 노란색은 사업번창, 녹색은 합격 기원, 보라색은 질환쾌유, 빨간색은 연애성취를 나타냅니다. 오색 끈은 본당 안 십일면 관음상의 손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만지면 부처님과 손을 통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원하고 싶은 색의 오연줄을 연결하면 부처님께 직접 소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소시 사이간덴지 절 본원에 남아있는 독특한 의식 중 하나로 히와타리신지 (불길 걷기) 가 있습니다. 매년 봄에 절의 스님들은 나뭇가지와 '호마목' 이라는 기도가 적힌 평평한 나무조각을 태워, 그 잔불이 남아있는 수 미터의 길을 걸어서 건넵니다.



옛날과 오늘날의 사랑을 이어주는 절

사이간덴지 절 왼편 안쪽에는 ‘사료가바시’ 라고 불리는 용암길이 있습니다. ‘샤료(写経)’란 불교 경전의 한 구절을 옮겨 적는 것입니다. 근대적인 도로가 정비되기 전에는 사료가바시가 분화구에 오르기 위한 주된 길이었습니다. 승려와 신관만이 산꼭대기까지 오르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150m 정도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온다케산마이리’라고 불리는 등산로가 있으며, 혼인 전 관습으로 많은 젊은 커플이 이곳을 찾아 참배를 했습니다.

온다케산마이리를 하는 사람들은 봄과 가을, 춘분과 추분 즈음에 이 절을 방문했습니다. 1860년대 후반까지 절 서쪽 탁 트인 곳에 모여 살고 있던 야마부시(산악 수행자)들이 참배자들의 등산을 인도했습니다. 1871년 메이지 정부의 명령으로 야마부시들이 퇴거되고 사이간덴지 절이 폐사된 후에도 참배자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이쇼 시대(1912-1926) 기록에는 붉은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긴 줄을 지어 산을 오르는 모습이, 멀리서 보니 붉은 석산화처럼 보였다고 적혀있습니다.



사료가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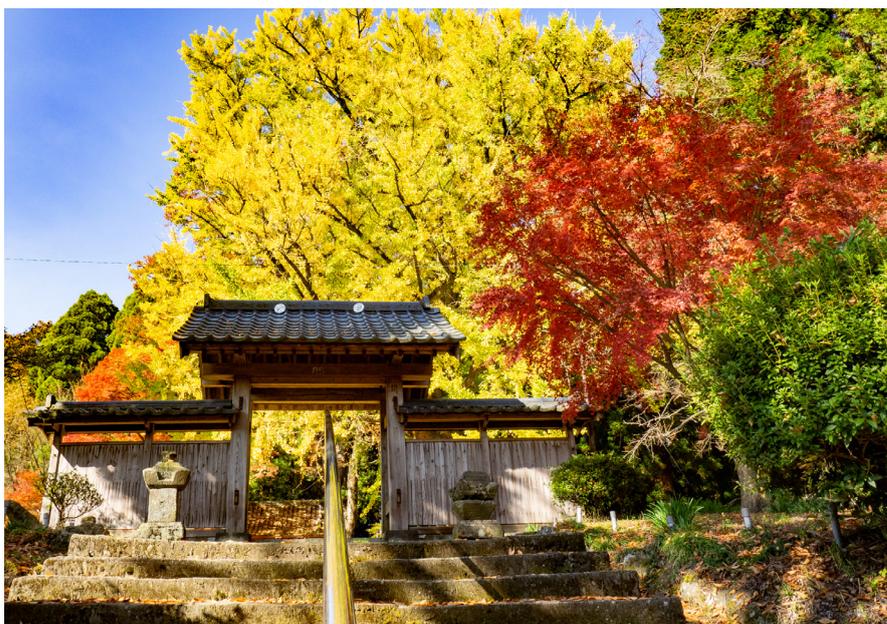


사이간덴지 오클노인과 앉은 소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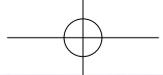
사이간덴지 절은 예로부터 인연 맺기(결혼과 연애의 인연)에 효험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효험이 현대적으로 해석되어 사이간덴지 절 오클노인은 2011년에 공식적인 ‘연인의 성지’(프러포즈에 딱 좋은 로맨틱한 장소라는 의미)인정을 받았습니다. 심볼인 소 좌상은 2023년 3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참배할 때는 이 소를 쓰다듬으면서 소원을 빌어보세요



사이간덴지 절 앞의 비석



사이간덴지 문 앞의 단풍



후루보추

후루보추 (古坊中) 란 무엇이였을까?

사이간덴지 절은 인도에서 온 사이에이 (最叡) 라는 승려에 의해 726 년에 창건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절은 화산신앙과 슈겐도 (修験道) 의 주요 거점으로 확립되었습니다. 14~15 세기가 되자 수백 명의 야마부시들이 사찰 서쪽에 다양한 넓이의 92 구획으로 나누어진 비교적 평탄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37 개의 훌륭한 목조 사원과 51 개의 작고 소박한 초가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야마부시와 승려들의 원만한 공동체는 후루보추 (古坊中) 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추 (坊中) 란 '승려와 그들이 거주하는 곳, 참배자들이 머무는 곳의 집합체', '후루 (古)' 라는 접두어는 '오래된' 이라는 뜻입니다.

수행자들은 매일 명상과 단식, 경전 등의 수행에 정진하거나 분화구 내 연못을 관찰하여 신들의 마음 상태나 의향을 살피거나, 참배자들이 분화구를 참배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허용된 가장 높은 지점까지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1960 년대 한 농가가 소를 방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이 지역을 정비하던 중 몇 개의 작은 석탑을 발견했습니다. 2000 년대에는 구마모토대학 화산학자 와타나베 가즈노리 교수가 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야마부시의 거처 지붕이었던 불에 탄 억새와 절 건물의 나무기둥이 발견되었습니다.

후루보추 (古坊中) 의 역사

사찰과 암자에 사는 승려와 야마부시의 공동체인 후루보추는 12 세기 후반부터 16 세기까지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덴쇼 연간 (1573-1592) 에 규슈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적대관계에 있던 이 지역의 씨족이 다투게 되자, 이 첩첩산중 속 생활에도 서서히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16 세기 후반에는 건물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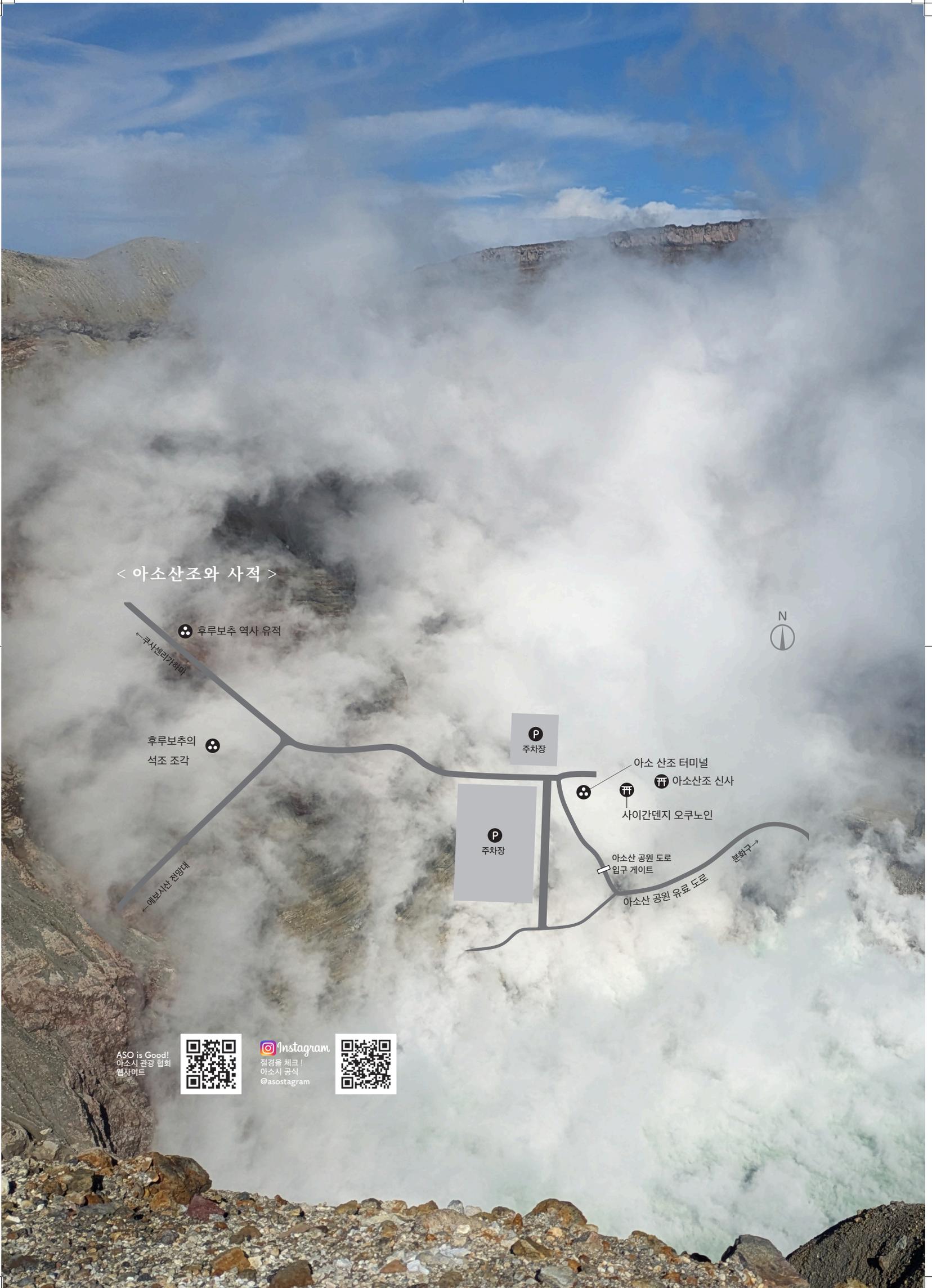
1588 년 전국시대의 무장 도요토미 히데요시 (豊臣秀吉) 는 가토 기요마사 (加藤清正, 1562-1611) 에게 시마즈 가문 토벌과 규슈 평정에 대한 공헌의 보상으로 히고국 (현재의 구마모토현) 의 지배권을 주었습니다. 11 년 뒤인 1599 년에 기요마사는 히데요시의 허가를 얻어 보추 (현재의 아소역 근처) 를 부흥시켜, 이전에 후루보추에 살며 기도를 올리던 승려와 야마부시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보 (坊)' 란 승려와 그들이 거주하는 곳, 참배자가 머무르는 방 등을 포함한 전체를 부르는 말로,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추 (坊中)' 입니다. 산 위에 있던 후루보추 ('오래된 보추' 라는 뜻) 와 구별하기 위해 이 새로운 보추는 후모토보추 ('산기슭에 있는 보추' 라는 뜻) 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632 년 기요마사의 아들이 잘못을 하여 유배된 후에 히고국 영주가 된 호소카와 가문도 후모토보추를 계속 미호했습니다.



현재 사이간덴지



행자 거리 (아소역에서 남쪽으로 똑바로 뻗어서 사이간덴지 가는 길)



< 아소산조와 사적 >

후루보추 역사 유적

← 쿠사네리카하마

후루보추의

석조 조각

← 에보사산 전망대

P

주차장

P

주차장

아소 산조 터미널

아소산조 신사

사이간덴지 오쿠노인

아소산 공원 도로

입구 게이트

아소산 공원 유료 도로

분화구 →

N

ASO is Good!
아소시 관광 협회
웹사이트



Instagram
절경을 체크!
아소시 공식
@asostagram

